국가 연주 때 앉아있던 제이지 "국가 나오는 줄 몰라"

팝스타 비욘세와 제이지 커플이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2020 슈퍼볼 공연' 에서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슈퍼볼 공연' 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보는 공연이며, 올해는 제이지가 주관해 제이지는 아내 비욘세, 딸 블루 아이비와 함께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 데미 로바토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공연 당시(오른쪽 사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립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다(왼쪽 사진).

제이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든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NFL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업체인 록네이션 업무와 관련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 이라며 "데미 러바토가 국가를 부르기 직전에 자리를 안내 받아 앉았고 곧바로 조명이나 플로어 스피커 등 무대 연출과 관련된 얘기를 하느라 국가가 나오는 줄 몰랐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제이지는 지난 2016년 8월 NFL 경기 당시 국가 제창 때 기립을 거부하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는 것으로 흑인차별에 대한 비난을 몸으로 표시한 캐퍼닉 선수를 옹호한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징계한 NFL과 오히려 손잡고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기획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미국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으로 무고한 흑인이 숨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기립하지 않은 캐퍼닉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난을 퍼부었으며, 결국 그는 팀에서 방출됐다.

조니뎁 조롱한 엠버허드 녹취록 공개

영화배우 엠버 허드(왼쪽)가 전 남편인 조니 뎁(오른쪽)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5일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조니 뎁을 조롱하며 비웃는 엠버 허드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앰버 허드는 조니 뎁에게 "남자인 네가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앰버 허드는 "어차피 재판부는 내 편" 이라면서 "난 52kg의 여성인데 내가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라는 말도 덧붙였다.

'가위손' '신비한 동물 사전'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조니 뎁은 꾸준히 '미국인이 선호하는 배우'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스타이다. 2015년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톰 행크스에 이어 '미국이 사랑하는 배우' 2위에 오르기도도 했다.

록 밴드 출신의 이색적인 이력을 갖춘 조니 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영국 모델·프랑스 배우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염문을 뿌렸다. 앰버 허드와는 2015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3살이다.

조니 뎁은 2016년 5월 앰버 허드와의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앰버 허드에게 약 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소셜50' 최장기 1위 신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인터넷 영향력을 보여주는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최장기 1위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는 3일 방탄소년단이 '소셜 50' 최신 차트에서 통산 164번째 1위에 오르며 팝 가수 저스틴 비버가 2011년 3월 이래 지킨 기존 최다(163주)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다.

'소셜 50' 은 2010년 12월 시작된 차트로, 분석 업체 '넥스트 빅 사운드' 가 아티스트의 SNS 팔로워, 언급 빈도, 조회 수 등을 토대로 인터넷 영향력을 집계한다.

방탄소년단은 2016년 10월 '소셜 50' 차트에 진입한 이후 통산 173주간 차트를 지켰고 이 중 9주를 제외하고는 정상을 유지했다. 2017년 7월 29일 자 차트 이후에는 연속 1위 행진을 이어왔다.

방탄소년단에 이은 통산 1위 기록으로는 저스틴 비버(163주), 테일러 스위프트(28주), 마일리 사이러스·리한나(21주), 아리아나 그란데(18주), 아델·레이디 가가·싸이(11주), 원 디렉션(8주) 등이 있다.

방탄소년단의 소셜미디어상 파급력은 전 세계 젊은 세대에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을 만한 방탄소년단 고유의 메시지와, SNS라는 플랫폼에 적격인 K팝 콘텐츠 특성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302호 숫자퍼즐 정답

1	2	6	3	9	5	8	4	7
8	9	5	7	2	4	6	1	3
7	3	4	6	1	8	9	5	2
4	1	2	5	8	3	7	6	9
3	5	7	4	6	9	2	8	1
6	8	9	2	7	1	4	3	5
2	6	3	8	5	7	1	9	4
9	4	8	1	3	2	5	7	6
5	7	1	9	4	6	3	2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운(運)의 흐름에 따른 부부(夫婦) 인연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항상 변화하는 대자연(大自然)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운명적인 환경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부(夫婦) 인연도 변화하는 운(運)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내용인데 어느 40대의 여인이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필자가 그 여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그릇이 의류와 인연이 많은 사주가 되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재물이 있기는 있는 팔자가 되는데 자신이 고생하며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쓰기 보다는 남편이 가져다 쓰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울먹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다운타운에서 의류와 관련한 사업을 남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도 잘되고 남편도 성실하게 저를 도와서 사업을 잘 해왔었는데 언제 부터인가 저녁만 되면 맨날 술만 마시러 다니고 그동안 같이 해왔던 사업은 거의 제가 혼자 도맡아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한데 틈만 나면 가게 매상을 가져가고 툭하면 종업원들하고 싸우면서 종업원들이 붙어있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 부부(夫婦)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의 경우는 보통 자신의 운(運)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분의 사주를 같이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 사주도 같이 봐달라는 것이다. 남편의 사주를 보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남편 분의 사주를 볼 때 자제력이 부족해서 오버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처덕(妻德)을 볼 수 있는 사주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運)의 흐름이 두 분의 원만한 부부 인연을 돕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야 두 분의 원만한 부부(夫婦) 인연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항상 변화하는 운(運)의 흐름은 부부(夫婦) 사이에도 유정(有情)한 세월 또는 무정(無情)한 세월이 오고가도록 굴곡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